

지눌스님의 사상체계 진정한 자아 발견 모든 생명 살리는 길

-강건기 교수-

지눌스님의 계율관은 지킬 것과 범할 것의 융통-조화성 강조

-권기종 교수-

지눌 신행의 결집 결사정신은 시대초월 새로운 문화 창조

-법산스님-

보조사상연구 세미나 '지눌 사상의 집중탐구'

"수심결(修心訣)에 나타난 지눌스님의 사상체계는 탐욕을 지속적으로 증장시키는 오늘의 세계에 진중한 자아 발견과 증생의 고통을 받음하며 모든 생명을 살리는 길로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지눌사상의 집중적 탐구 - 지눌의 저술을 통해서 주제를 24일 서울 법연사에서 열리는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스님) 제11차 학술회의에서 발표에 나서는 강건기 교수(전북대 철학과)는 미리 배운 논문 '수심결의 체계와 사상'을 통해 "현실과 근거를 감안한 실천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지눌사상의 현대적 해석은 현대 한국철학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수심결'의 사상체계에서 "수심의 바탕으로 공적영지심(空寂靈知心), 수심의 체계로서 돈오점수(頓悟漸修),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정혜쌍수(定慧雙修)의 구성과 있다"고 설명한 뒤 "특히 돈오점수와 아울러 돈오돈수의 입장까지도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눌스님이 실천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심결'에 나타난 지눌사상의 특성과 의의를 △원융적 성

격 △현실과 근거 중시 △실천 중시 △외래사상의 주체적이고도 창의적인 수용 △참 나를 찾고 실현하는 직접적인 길 제시 △자기실현의 과정과 증생제도의 이타행의 연결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강 교수는 "본래 부처인 우리의 마음자리를 분명히 깨쳐서 생활 속에 밝게 드러내고 일체의 모든 생명을 향한 동체자비를 실현시키는 것이 '수심결'이 보여주는 수심(修心)의 바른 길이요, 가장 인

간담게 사는 길"이라며 "공적영지심에 대한 무절한 깨침과 그것을 통한 이타행을 오늘의 현실에 재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새로운 경종으로 울려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종 교수(동국대 불교학부)는 논문 '계초심학인문(戒初心學人文)의 연구'에서 "(계초심학인문)에 나타난 지눌스님의 계율관은 불계(佛戒)를 수지(受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킬 것과

범할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융통성과 조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한국불교의 전통적 승가행(僧伽行儀)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규범이 되고 있는 (계초심학인문)은 출가한 초심학인(初心學人)만이 아니라 모든 불교인이 받아 지녀야 할 계율서"라며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분석, 제시했다. 첫째, 오계(五戒)와 십계(十戒)의 무분별한 맹종이 아닌 지법개차

(持別開遮)를 잘 조화할 것을 강조하고 둘째, 인천(人天)의 대복전(大福田)이 되는 것이 승가의 공극적 이상이며 검약지족(儉約知足)과 근행(勤行)이 수행자의 태도라는 이상적 승가상과 승가의 본분을 제시했으며 셋째,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에서부터 대인관계,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에 걸친 모든 행동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권 교수는 "(계초심학인문)은 지눌의 그 어떤 찬술보다 양이 적은 저서이지만 그 어떤 찬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 연구로 발표에 나서는 법산스님(법주사)은 지눌의 신행을 통한 깨달음을 실현시킬 대중적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수정혜결사문'에 체제와 내용에 관하여 검토하고, (정혜결사문)이 영원한 깨달음의 차이를 전담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새로운 양식의 수용이라는 것.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삼국유사)에 실린 분황사관을 보살 설화(신종원·강원대) 10권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opia.com)

분황사 창건 왕권회복-경제번성 기원

분황사 재조명 세미나

신라 중기에 건립된 분황사(芬皇寺)를 집중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 주최로 9~1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분황사의 재조명(諸照明)'을 주제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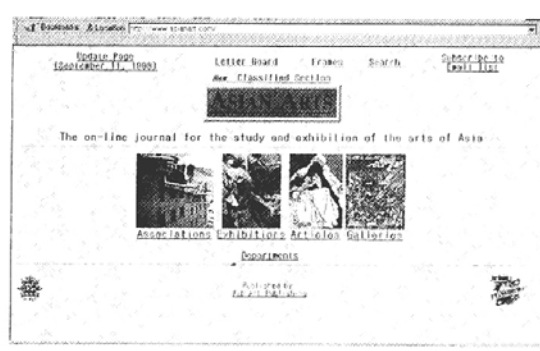
이날 세미나에서 '분황사 창건의 정치·경제적 배경'으로 발제에 나선 이인철 교수(중앙대)는

"분황사 준성은 종교적으로는 불교의 번성에 힘입은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외적의 침입과 여왕통치로 인한 왕권의 허약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라왕실의 열성과 경제적으로는 고탄소장의 생산확대와 석공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축조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분황사 모전석탑(模塼石塔)에 대한 고찰'에서 박경식 교

수(단국대)는 "분황사 모전석탑은 중국의 전담에서 기인한 양식이라고 보다는 인도의 석탑양식이 중국을 거쳐 신라에 수용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양식 자체만으로 볼 때 목탑과 전담의 양식이 절충된 것으로 보이지만 재료상의 차이에서 전담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새로운 양식의 수용이라는 것.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삼국유사)에 실린 분황사관을 보살 설화(신종원·강원대) 10권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o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미술을 찾아라

티벳·중국·일본 등 불교미술 감상 초기불교 동굴사원 프로젝트 '관심'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불교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는 사이트를 찾아가 불함을 만끽해 보자. 이 즐거움에는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유적지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불교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고, 티벳, 중국, 일본, 스리랑카 등 각국의 대표적 인물 작품들을 보고, 그 차이점도 비교해 볼 수 있어 네티즌의 즐거움은 배가된다.

美 미시간대학의 △남아시아 미술 위원회에서는 아시아 불교 미술품에 대해 1백67개의 주제를 정해 놓고 슬라이드 필립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 선정한 미술품은 네팔, 티벳,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유적지와 박물관 소장품이다. 이 곳에서는 이 계획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제작된 작품 50점을 감상할 수 있다.

△아시아 예술에서는 티벳에서 경전을 보호하기 위해 목재로 만든 표지를 열람할 수 있다. 히말라야 산맥의 독창적인 미술품이 탕카(Thangkas)의 원형을 이 표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목판 위에 섬세하게 새겨진 아미타불, 만다라 등에서 옛 공인들의 신심을 느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카투만두 계곡에 있는 파탄박물관의 소장 불교 미술품도 열람할 수 있으며, BC 2세기부터 AD 13세기까지 제작된 불상 중에서 특징적인 불상 24점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불교미술을 연구하고 있는 석학들의 연구 논문을 읽을 수 있다. 국제적인 미술연구 단체인 예술 대회를 위한 서구 연맹(Western Association for Art Conservation)에서 '티벳의 탕카'를 주제로 한 97년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들이다. 여기에는 '티벳의 현대적 정착 - 네팔의 경우' 등 4편이 있다. 30~50여명의 스님과 예술가들이 제작하는 거대한 탕카화들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탕화는 티벳의 트서푸사원에 있다. 이 탕화는 1992년부터 2년간 제작되었는데 크기가 무려 가로 23미터 세로 35미터에 달한다.

△일본 불교 조각사이트는 일본의 불교 조각품을 시대별 종파별로 구별해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일본 불교사에서 나 라시대 즉 8세기는 거대 사찰들이 조성됐던 시기이다. 슈본 사원의 '사천왕' '아수라', 부처님의 열반을 지켜보는 사부대중의 슬픔이 극명하게 묘사된 호류지의 석굴 조각들이 있다. 또 트케와 밀교계 불교미술 품도 열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네팔의 불교미술을 엿볼 수 있는 '신(新) 불교예술' (<http://kaladarshan.arts.ohio-state.edu/Nepal/nepal.htm>), 불교미술을 쉽게 개관해 놓은 '현턴턴의 불교미술'(<http://kaladarshan.arts.ohio-state.edu/default.html>) 등이 찾아 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opia.com)

구 논문을 읽을 수 있다. 국제적인 미술연구 단체인 예술 대회를 위한 서구 연맹(Western Association for Art Conservation)에서 '티벳의 탕카'를 주제로 한 97년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들이다. 여기에는 '티벳의 현대적 정착 - 네팔의 경우' 등 4편이 있다. 30~50여명의 스님과 예술가들이 제작하는 거대한 탕카화들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탕화는 티벳의 트서푸사원에 있다. 이 탕화는 1992년부터 2년간 제작되었는데 크기가 무려 가로 23미터 세로 35미터에 달한다.

△일본 불교 조각사이트는 일본의 불교 조각품을 시대별 종파별로 구별해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일본 불교사에서 나 라시대 즉 8세기는 거대 사찰들이 조성됐던 시기이다. 슈본 사원의 '사천왕' '아수라', 부처님의 열반을 지켜보는 사부대중의 슬픔이 극명하게 묘사된 호류지의 석굴 조각들이 있다. 또 트케와 밀교계 불교미술 품도 열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네팔의 불교미술을 엿볼 수 있는 '신(新) 불교예술' (<http://kaladarshan.arts.ohio-state.edu/Nepal/nepal.htm>), 불교미술을 쉽게 개관해 놓은 '현턴턴의 불교미술'(<http://kaladarshan.arts.ohio-state.edu/default.html>) 등이 찾아 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opia.com)

팔정도 자기개혁적 해석 종교간 대화에 희망 제시

최종석씨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서 발표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을 향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기독교의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 모든 종교는 서로에게 동반자이지 경쟁자이거나 적이 아니므로 서로 배워서 이해하지는 종교 다원주의(Pluralism)가 대두되면서 불교의 공(空)개념과 기독교의 신(神)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팔정도(八正道)'를 통해 '공(空)'과 신의 '스스로 비움(Kenosis·空化)'을 접목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10일 동국대에서 열린 고려대장경연구소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5차 세미나에서 최종석씨(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연기와 공의 종교신학적 이해에 대한 고찰'을 통해 "팔정도의 자기개혁적 해석은 종교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시도한 팔정도의 재해석은 '정견(正見)'이 진리를 향해 마주보고, 무아(無我)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결단'이라면 기독교의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정사(正思)'가 진

리를 향한 끊임없는 율림의 올바른 생각이라면 예수도 진리를 향한 태도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진리 안에서 말의 함축을 살피는 '정어(正語)'는 요한복음의 첫머리에 나오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는 구절과 일치하며, '정업(正業)'은 늘 깨어있는 행위로 하느님을 향한 긴장을 놓치지 말고 깨어 있는 삶을 영위하려는 신앙 성서의 구절과 같다. '정명(正命)'은 종교적으로 의식화된 생활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대비시킬 수 있다. 자신의 해탈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강조한 '정진(正精進)'은 주어진 능력을 발휘하고 게으르지 않기를 경고한 '달란트'의 비유와 유사하며, '정념(正念)'은 진리를 향한 열정의 현재성으로 '종교적 실천'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밖에 '정정(正定)'은 진리의 체현을 통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정은 기자



고양이 달마



인터넷 사이트 달마캣 (<http://www.dharmathecat.com>)에서 제공하는 선(禪)만화.

해설 불교적 시간관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이의 기지를 통해 동승은 존재란 실체가 없으며 단지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다.

책이 있는 시간 · 책이 있는 공간 · 시공사

- #### 시공 불교경전
- 1 유아경
정수용 불어 옮김 / 값 12,000원
 - 2 범화경 1·2
이연숙 불어 옮김 / 값 각각 12,000원
 - 3 마하박가 1·2·3
최병수 불어 옮김 / 값 각각 14,000원
- #### 시공 불교총서
- 1 고리마 붓다의 생애
E H 브루스터 편저 / 박태섭 옮김 / 값 6,000원
 - 2 붓다의 옛길
피터서 지음 / 한영수 옮김 / 값 7,000원
 - 3 경전의 성립과 전개
미즈노 고젠 지음 / 이미영 옮김 / 값 6,000원
 - 4 불교철학사
D J 램부피하나 지음 / 김종욱 옮김 / 값 8,500원
 - 5 불교 심리학
루네 E A 오한스 지음 / 박태섭 옮김 / 값 6,500원
 - 6 유식 입문
다카사키 지키도 지음 / 이지수 옮김 / 값 5,000원
 - 7 간추린 인도불교사
에티엔 리모트 지음 / 정외도 옮김 / 값 5,000원

수능세대를 위하여

뚝뚝뚝 부교를 두드려 보자

절에 가면 착해져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면서 불상에 절은 왜 하죠? 참선만 하면 깨달을 수 있나요? 불교에 대한 열 개의 질문. 생각해 볼 이야기 여섯 가지. 그리고 고개마다 쉬어가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불교와 부처님과 친해집시다. 그리고 스스로 부처님이 되세요.

윤원철 외 지음 / 238쪽 / 값 7,000원

현전(現前)과 부재(不在)의 언저리에서

無

를 향해 기어가는 달팽이

삶도 세상도 그리고 나와 늘 함께 있는 너조차도 無일 뿐이다. 내 온몸으로 감싸 안아도 그것들의 한 쪽 귀퉁이는 언제나 빠져주거나 나와 있고 그것들의 하층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늘 나를 짓누른다. 그렇다고 해서 벗어 던지거나 모른 채할 수도 없는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 나는 오늘도 無속으로 떠나는 것이다. 느릿느릿한 달팽이가 되어.

박재현 지음 / 268쪽 / 값 7,000원

- #### 시공사의 불교책들
- 불교 길라잡이
리철환 지음 / 값 18,000원
불교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불교 입문서
- 미라레베의 十萬頌
기브라 벤치참이 옮긴 명언을 이집트 불어 옮김 / 값 18,000원
타미르 시자, 미라레베가 전한 아름다운 깨달음의 노래
- 책안의 불교책밖의 불교
김초성 지음 / 값 6,500원
숨어있는 좋은 책이름 뒤에 대한 사랑
- 부처님의 아흔아홉 가지 말씀
이항기 지음 / 값 5,000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려 뽑아서 재미있는 식화로 들려 주는 책
- 알게 모르게 모르게 알고
원익범 지음 / 값 6,000원
삶을 깨달은 1,700가지 생명의 생각들
- 책으로의 초재
스즈키 순류 지음 / 최세안 옮김 / 값 5,000원
어렵게만 느꼈던 신학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 주는 안내서
- 새벽신사에 가보세요
미영준 지음 / 값 7,000원
미움으로 떠나는 사랑 여행
-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계환 지음 / 값 6,500원
숨어있는 참-나를 찾아서